

“구원으로부터 탈락될 수 있는가? part I”

—최갑종 교수 (백석대 총장, 신약학 교수)—

박영돈 교수에 따르면 바울 서신에서 “분명하게 칭의의 유보와 탈락을 말하는 구절은 없다.” “그런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구절은 대개 육신을 따르는 삶의 위험성과 불의한 자의 말로를 일깨워 줌으로 신자를 경성케 하여 구원에 이르는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경고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바울 서신에서 오직 은혜와 믿음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는 구절들(롬 3:21-22,28; 갈 2:16; 엡 2:5,8)과 성도의 견인과 궁극적인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구절들(롬 8:33-39; 딤후 2:18-19)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박 교수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일면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최후 심판과 탈락에 관하여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되지 않아야 한다.

로마서 2:5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을 그 날”을, 로마서 14:10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 날”이 있을 것을 말한다. 고린도후서 5:10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라고 말한다. 갈라디아서 5:19-21과 고린도전서 6:8-10에서는 여러 가지 도덕적, 사회적 악들을 먼저 열거한 다음,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종

국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말하자면 부도덕한 일들을 자행하는 자들은 최후 심판 이후에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영생/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그와 같은 일들을 할 경우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그 밖에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도 최후 심판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서 25장에 있는 “열 처녀 비유”(1-13), “달란트 비유”(14-30), “양과 염소의 비유”(31-44) 등은 최후 심판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나, 주인의 명을 어긴 한 달란트 받은 종이나, 사랑의 선행을 보여주지 못한 원편에 있는 자들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하여 영벌에 처하는 자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1세기 상황에서 이러한 본문을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가르치는 자나 이들을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어떻게 마지막 심판에서의 축출을 뜻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 수 있었겠는가?

물론 결과적인 면에서 말한다면 최종적인 구원으로부터 탈락한 자들, 곧 성화의 열매가 없는 자들은 처음부터 참된 믿

음과 칭의가 주어지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앞에서 인용된 구절들은 참된 신자나 참된 칭의자들을 제쳐두고 거짓 믿음과 거짓 칭의된 자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신자나 예수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말씀들이다. 만일 이런 말씀들이 실제로는 집행의 의도가 전혀 없는 단순히 경고의 의미만으로 주어졌다고 말한다면, 이 구절들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어떤 윤리적인 권면도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할 때 그에 따른 실제적인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윤리적인 권면은 종이호랑이로 전락될 수 있다. (다음 주에 계속)



◀ 최갑종(백석대 총장, 신약학 교수) 고신대와 고려 신학 대학원 졸업, 미국 Reformed 신학대학원, Calvin 신학대학원, Princeton 신학대학원, Iliff 신학대학원과 Denver 대학교 대학원에서 신약(부전공 구약)을 전공(M.A, Th.M., Ph.D. in Biblical Studies).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RTM(Restoring Truth Media)에서는 작년 12월 5-6일 양일간 서울 연동교회에서 “이신칭의,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신학 포럼의 내용을 미국 내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을 위해 본 신문에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RTM(Restoring Truth Media)은 미디어를 통해 진리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선교단체입니다. 동성애 문제로 혼란에 빠진 이 시대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약 2년에 걸쳐 제작한 첫 작품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다큐는 2016년 1월 초 유튜브에 업로드한 이래 현재 백만 명 이상이 시청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미디어를 제작하여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집 구원론/칭의론 시리즈 한국교회의 타락(옥한흠 목사), 주를 보지 못할 교인들(박영돈 교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박영돈 교수), 한국교회 안에 구원파적 구원론이 범람하고 있는 주된 원인(박영돈 교수/최갑종 교수), 한국교회 안에 널리 퍼져있는 거짓 구원론(김세훈 교수/박영돈 교수/최갑종 교수),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가(박형용 교수/김세훈 교수) 등

RTM RESTORING TRUTH MEDIA

www.restoringtruthmedia.org